

傳記의 문화적 位相 정립

金容德著 「韓國傳記文學論」

소설이 인생을 통한 새로운 의미의 포착이라는 명제를 짊어지고 있다고 했을 때, 작가는 그의 관심의 대부분을 그 특별한 의미의 발현체에 소진시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확실히 정지한 문학적 이론에 근거하고 있는 현대소설에서는 온갖 장치·기교를 통해 철저히 하면서도 교묘하게 수행된다.

그렇다면 시간을 아주 거슬러 올라가 현대적 의미의 소설이라는 것들과 만나 보자. 필경 우리는 「○○傳」이란 제목의 얘기책과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제명에서 벌써 우리는 그들이 지닌 서사물의 한 특징을 짚게 된다. 인물, 특히 주인공을 특별히 강조한다는 점이다. 그들이 인물을 나름대로 창조하려 한 열정은 현재의 작가들 못지 않다. 한데 인물의 선정에서 그들은 실존형과 허구형 두가지를 모두 수용하고 있었다. 시간을 거슬러 갈수록 허구보다는 실제적 사실과 인물이 중시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얘기라고는 하지만, 역사와 문학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이야기물에 맞닥뜨리게 된다. 단순히 고전소설 혹은 史傳이라 말할 수 없는 이중적 성격의 기록물이 적지 않고 그것이 허구화된 이후의 이야기들과 유사하다는 점은, 고전소설의 연구를 막다른 골목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의미심장한 것이다.

金容德교수의 「韓國傳記文學論」(민족문화사·1987)은 이 점에서 시의적절한 등장이라 할 것이다. 필자의 주장 가운데 특히 주목할 것은, 傳을 독자적 문학으로 인정하고 제대로의 位相을 정립시켜보자는 집념이다. 이른바 고전소설의 부수물로서 역사연구의 보완적

기능이라는 한계로부터의 탈피는 무엇보다 축적된 양을 충분히 현시해 보이는 데 있다고 판단한 필자는, 개별적 작품의 분석보다는 전체적 조망에, 공식적 접근보다는 통시적 살필을 주로 하여 傳의 概觀을 잡아주기에 열중한다. 그러면서 필자는 傳文學에 대한 보다 명확한 개념으로서의 다른 용어를 傳記라 할 것을 제안한다. 막연히 소설이라는 테두리로 규정하려던 前代의 장르개념에서부터 당대적 인식은 물론 현대적 문학이론까지 수렴해, 확장된 개념으로 傳記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燕巖소설이나 허균의 소설에서 傳記와 소설의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문제의 소지는 있지만 시각의 참신성은 높이 살 만하다.

하지만 필자가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 같은 점이 있음도 사실이다. 가령, 누누이 독립 장르로서의 傳記를 주장하면서 소설과의 연관성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다. 傳記의 문학적 성격을 정립시키는 마당에 지나치게 소설을 의식함으로써 主小説·從傳記로의 전개가 아닌가 하는 오해를 낳는다.

또하나, 종합적 접근 때문이겠으나 한국 傳의 전개양상, 곧 崔致遠의 僧傳과 고려시대의 傳에 관련한 중국 傳들에 대한 접근이 있었으면 했다. 朝鮮朝의 傳에만 주목한다고 해서 본래 傳의 특징적 면모는 금방 잡혀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승호

서울시 관악구 봉천11동 196-67 · 동국대 대학원 국문과 박사과정

재미있고 참신한 生活詩 모음

김원석 작 「아이야 울려거들랑」

요즘 어린이 도서가 붐을 이루는 것 같다. 그러나 막상 내용이 유익하면 지루하고, 재미있으면 속이 텅빈 것인 경우가 많다. 특히 시에 있어서는 어린이에게 골라 권할 만한 것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김원석 생활시 「아이야 울려거들랑」(가톨릭출판사·1987)은 재미와 유익함을 함께 갖춘 책이라 할 만하다. 쉬운 시구 속에 동심의 순수함이 잘 표현되어 신선함을 느낄 수 있다. 더구나 童詩에 알맞게 그려진 삽화는, 지금까지의 구색맞추기에 지나지 않았던 그림의 역할을, 시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살려주는 구실로 격상시켜 삽화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 이 책에 그려진 삽화는 몸에 잘 맞는 옷이 마음에 쏙 드는 것처럼, 시에 잘 맞는 옷의 구실을 하고 있다.

얼마전 페트릭 조셉 코넬리의 「사랑하는 아빠가」란 책을 보면서, 쉽고 재미있는 문장과 간절한 父情, 그리고 적절한 삽화를 보면서 느꼈던 뿌리움과 위축감을, 이 책은 일시에 해소시켜 줄 뿐 아니라 자부심까지 갖게 해주었다.

또한 「예술아」와 「내 친구 명락이」에는 곡이 붙어서 가족 노래로 부르기 좋을 뿐 아니라, 대화식이어서 노래를 잘 못부르는 사람도 마음놓고 부를 수 있겠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생활시란 장르가 익숙한 용어는 아니지만, 지은이와 아내, 그리고 아들 예술이의 그날그날의 생활을 써 나간 것으로 쉽게 이해될 수 있다.

특히 대화식 표현은 새로운 기법이며, 짤막

짤막한 시구 속에는 화목한 가정의 단편적 생활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들어와 있다.

이 책에는 「뭐라고 부를까요」(40수) 「아이야 네웃음으로 산단다」(14수) 「먼저 내리는 비」(12수) 「쓰레기통」(21수)의 4장으로 이루어져 총 87수가 실려 있다. 삼촌이 다섯이라고 자기 나이를 말하는 걸 보고 삼촌이 일곱 살인 나보다도 어리다고 생각하는 단순성, 옆집 철이와 때리고 맞는 건 싸움이라면서 엄마와 아빠가 다투는 건 무엇이고 묻는 어른세계를 보는 날카로운 직관, 노랑나비가 되어도 날 정그럽다고 할까라고 묻는 배추벌레의 철학적성, 가족애와 열등감의 해소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어린이와 엄마, 아빠, 그리고 동심의 세계를 그리워하는 이들에게 꼭 일독을 권하고 싶다.

강호경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690-63 13동 1반 · 教師

慶州南山

寫眞 — 姜運求 글 — 金元龍 · 姜友邦

佛敎文化의 寶庫 慶州南山에 산재해 있는 佛蹟을 한눈에 通觀할 수 있도록 체계있게 편집한 울컬러판 사진집

千年을 거슬러 올라간 新羅淨土의 현장 재현

신라인들이 오르던 길을 오르고 있으면 솔나무 옆의 두리몽실한 바위가 부처가 되고 흐르던 시간이 소리없이 멎어서 신라로 돌아간다. 천년, 부처는 그렇게 앉아 계시고, 천년, 그렇게 서계실 것이다. 부처는 바위, 바위는 부처, 우러러보는 사람도 부처, 모두 피가 통하는 일심일체이다. 바위가 땅에서 솟아나고 바위에서 부처가 솟아난다. 그리고 그뒤에 신라의 佛工이 서있다. 무언의 대화는 그저 감격뿐이다. — 金元龍

· B4判 (25.8×37.6 cm) / 호화양장 / 케이스인 / 總 208面 울컬러판 / 값 100,000원

열화당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5-5 출판단지내 715-1588, 717-0613